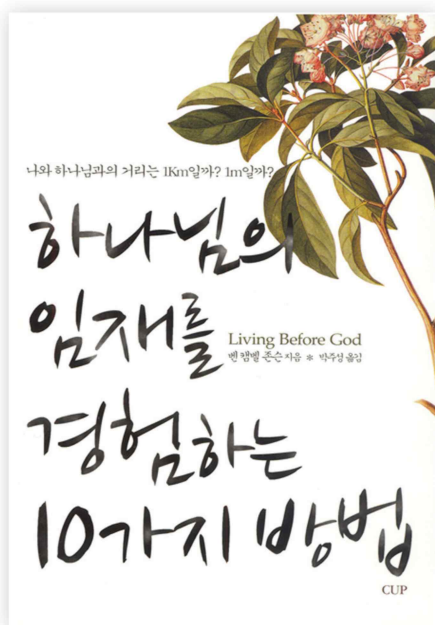


BOOK REVIEW

벤 캠벨 존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 가지 방법

글 송인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서울: CUP, 2010

벤 존슨(Ben Campbell Johnson, 1932~)은 1981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장로교 계통의 신학 기관 컬럼비아 신학원(Columbia Theological Seminary)의 전도 및 교회 성장학 교수로 재직했다. 재직 도중에 그는 전공 분야를 기독교 영성학(Christian Spirituality)으로 바꾸었다. 그는 하나님 뜻을 분별함,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일상 생활의 영성 등 영성 전반에 관해 책을 썼고, 「하나님의 임재」도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혹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10 가지 항목으로 설명한 경건 서적이다. 이 10 가지는 (1)영적 수면, (2)경이로움, (3)렉티오 디비나, (4)사단의 기만, (5)하나님의 음성, (6)일상의 삶, (7)현재에 집중함, (8)내 안의 그리스도, (9) 속박과 자유, (10)끝까지 신실하게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항목 가운데 좀 더 서평자의 주목을 끈 항목은 (3) (5) (6) (8)의 네 가지다. 이제 이 항목들을 한 가지씩 살피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고, 또 성경을 그저 공부하는 식으로서가 아니라 경건적 읽기(devotional reading)의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저자는 4장에서 이런 식의 읽기를 이미 통상화된 용어 렉티오 디비나(lectio divina)로 소개하면서, 여기에 4 단계의 활동 [렉티오(읽기, lectio) → 메디타티오(묵상, meditatio) → 오라티오(기도, oratio) → 컨템플라티오(관상, contemplatio)]이 연관된다고 말한다. 이 가운데 네 번째 단계인 컨템플라티오는 관상(觀想)으로 번역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책에는 ‘경청’이라고 약간 빛나가게 번역이 되어 있다.) 한글 사전에 보면 ‘관상’이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일; 마음이 사색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단순하며,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응시하는 기도의 경지’라고 설명되어 있다. 결국 이것은 가톨릭 교회 내 신비가들이 제안한 바 비시오 데이(visio Dei, vision of God)의 경험으로서, 개념(concepts)이나 표상(images)의 매개가 없이 하나님을 직관하는 일이다. 그러나 저자는 말씀의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관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건전한 형태의 렉티오 디비나를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5장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하여 네 가지 유형 - 일방적 언설(solitary speech), 대화적 언설(dialogical speech), 예언적 언설(prophetic speech), 전례적(典禮的) 언설(liturgical speech) -을 언급한다. ‘일방적 언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음성을 들려 주시는 것인데 비해 ‘대화적 언설’은 그리스도인과의 상호 대화 가운데 말씀하시는 방안을 의미한다. ‘예언적 언설’은 소위 ‘예언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위기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을 때 주어진다. ‘전례적 언설’은 예배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저자는 ‘예언의 은사,’ ‘예언자’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로써 보통 초자연적 은사의 종지(終止)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장로교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의 흔적을 더 빈번히 발견하면 할수록, 심지어 그러한 어두운 순간들도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최적의 계기임을 더 확연히 깨닫게 된다”

본 비평자에게 가장 의미 심장하게 느껴지는 주제는 일상 생활에서의 하나님 임재 - 요즈음은 보통 ‘일상 생활의 영성’(spirituality of everyday life)이라고 일컫는데 -를 다룬 6장의 내용이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에 비추어 보는 것과 관련하여 저자는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는데, 다음의 내용이 비평자의 주목을 끌었다. 우선 하루라는 시간의 흐름을 당일에 벌어진 에피소드나 사건에 따라 몇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는 일이다. 이렇게 각각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한 요약과 묵상을 시도할 때 하나님의 개입을 의식하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독자들이 하여금 여덟 가지 항목의 질문을 던져 보도록 함으로써 이 점을 부연해서 설명한다.

1. 이 날을 돌아볼 때, 사건의 흐름은 어떠했는가?
2. 내가 느낀 마음의 갈망은 무엇이었는가?
3. 오늘 삶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질문들이 생겨났는가?
4. 오늘 무슨 일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는가?
5. 삶의 신비감에 휩싸이게 만든 순간들이 있었는가?
6. 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 있었는가?
7.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도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고 느낀 순간들, 곧 카이로(kairos)의 순간들이 있었는가?
8.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평범한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일상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즐겁고 영광스러운 경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꽤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은 고통, 당황, 환멸, 실수, 유혹, 절망, 두려움 등의 연속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의 흔적을 더 빈번히 발견하



면 할수록, 심지어 그러한 어두운 순간들도 우리의 기록을 이루는 최적의 계기임을 더 확연히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8장에서 그리스도의 내주를 설명하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어디’계신지를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의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저 멀리’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 후에는 ‘바로 앞에’ 계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훨씬 더 친밀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가 첫 단계 보다는 낮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신적 표상(mental images)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상 승배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막다른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세 번째 단계로서 이는 ‘바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갖는 이점은 ‘바로 앞에’서와 같이 친밀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자 애쓸 필요가 없게 된다는 데 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디’에 대한 저자의 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의 종착점은 드디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요 14:21-23에서 ‘임재의 약속’을, 골 1:25-27에서 ‘영광의 소망’을, 고후 6:16, 18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엡 3:16-17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찾는다. 결국 하나님을 저 멀리에서도, 내 앞에서나 내 뒤에서도 찾지 말고, 바로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후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저 멀리 계신 하나님’도 나와 관계가 소원한 하나님으로보다는 오히려 우주에 대한 주권적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이해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비평자는 저자의 상기 설명에 찬사를 보내고 기꺼워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이견(異見) 또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첫째, 본 비평자의 이해력이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대한 해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물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시 139:5)만큼은 부인하지 않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의 설명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이 어구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대한 정신적 표상의 불필요성을 설명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게 느껴진다. 둘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는 그리스도와와의 신비적 연합(unio mystica)을 나타내는 구원 신앙의 핵심적 사안으로서 최상의 주목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경험을 왜 꼭 저자처럼 네 번째 단계로 겪어야 하는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깊이가 점차 깊어지는 이들도 있지 않은가?

셋째, 본 비평자는 하나님의 ‘어디’에 관한 묘사들을 영적 성숙의 단계와 연관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 의식(religious consciousness)에 모두 필요한 표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후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저 멀리 계신 하나님’도 나와 관계가 소원한 하나님으로보다는 오히려 우주에 대한 주권적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이해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연합을 이루시고 함께 친밀성을 나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친밀성의 각도에서 보면 물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꼭 친밀성의 결여를 뜻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함과 동시에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며 또 내 안에 계시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디’와 연관한 비평자의 의문과 비평은 결코 벤 존슨의 저술이나 그의 저술 방식에 대한 폄하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 그의 탐구 정신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그의 저술 내용이 피상적이고 초보적이었다면 비평자의 이런 비평 또한 전혀 부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저자는 미국의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매우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했다. 그러나 그의 저술 내용이 미국의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실한 것은 아니다. 바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각을 자극하고 참고 거리를 제공하여 동시에 공감을 일으킨다. 그것은 아마도 저자가 자신이 겪은 삶의 경험을 진솔하고 담담한 필치로 나누기 때문일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의 영적 갈급함이 이 작품을 통해 더욱 진지하고 순수하고 투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우리로 하여금 저자인 벤 존슨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배우게 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그런 영적 여정의 스토리를 작성하도록 은연 중에 촉구하고 있다.